

렘브란트와 함께하는 고/난/주/간 명화묵상집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 반 고흐(van Gogh) -



네덜란드를 '렘브란트의 나라'라 부른다고 한다. 그만큼 그는 한 시대와 국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역사, 초상, 풍경 등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회화, 유화, 판화, 드로잉 등 거의 모든 표현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회자되는 이유는 '빛'의 사용 때문이다. 이 '렘브란트의 빛'은 작품을 통한 자신의 신앙고백적 표현이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자화상과 함께 성서그림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앙은 그의 굴곡진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던 동시에 그의 작품세계의 세계관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의 첫 유화작품인 〈스데반의 순교〉(1625)는 사인이 들어간 첫 작품이었으며 그의 최후작품은 〈탕자의 귀향〉(1669)이었다. 이처럼 렘브란트에게 성경은 소명이었을 뿐 아니라 실존의 비밀을 푸는 열쇠였다. 주목할 것은 당시 교회는 성경을 그리는 일을 의뢰하지 않았다. 렘브란트는

후원 없이 자발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려 나갔다. 렘브란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건장한 풍채나 한껏 신화화된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의 삶을 통해 경험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주된 관점이 되었으리라 본다. 그는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 예술에 대한 타오르는 동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갔다. 렘브란트가 숨을 거두었을 때 그의 곁에는 헌 옷가지 몇 벌, 그림 도구, 그리고 낡은 성경책이 전부였다고 한다.

아내가 죽고, 제자들도 모두 떠나가면서 그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그 분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경험은 그로 하여금 '빛의 화가'라는 명성을 얻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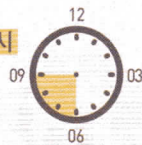
참고_「서성록의 미술이야기」

렘브란트 [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 ~ 1669]

고난주간 동안 빛의 화가 렘브란트와 함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다 시각적, 입체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01 종려주일 :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목요일 밤 06~09시



[요한복음 13장 3-10절]

말씀읽기

3.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8.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본문이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요13:1) 그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종'의 신분에서 있는 사람이 식사 전에 손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요 13:4)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 줄 '종'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스스로 '종'이 되신 것입니다. 일하기 편하도록 직접 겹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성경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은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벧전 1:13)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이 되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빌 2:6-8) 예수님의 뜻을 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 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더 단호하게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겸손한 미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있게 하려는 애타는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묵상



발을 씻기심 (1655년, 드로잉)

이 작품은 일반 종이 위에 잉크 펜으로 빠르게 그려나간 '소묘'입니다. 그래서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선의 기본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소묘작품'일수도, 아직 색을 덧입히지 않은 미완의 작품일수도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세족식 장면에서 받은 영감을 빠르게 그려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자에 앉아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길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 목, 기울어진 상체, 의자를 붙든 손, 엉거주춤하는 엉덩이. 당황한 모습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이렇듯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은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당혹스러운 사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죄인이 된 우리의 상식을 지나치게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말입니다.

Q1. 예수님께서 당황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Q2. '발'보다 더 더러운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46절]

말씀읽기

39.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45.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본문이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가신(누가복음 22장 39절)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들로 무성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좋은 향기를 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 고난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기도하실 때 내면의 고통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땀은 핏방울과 같았습니다. 44절에서 사용하는 '핏방울'이란 '쓰롬보스 하이마토스(thrombos haimatos)'로 많은 양의 응고된 핏덩어리를 말하는데 치열한 전투를 겪은 병사가 피를 쏟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힘쓰고 애쓰셨다'에 해당하는 '게노메노스 엔 아고니아(geno-menos en agwnia)' 또한 전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내면적인 갈등과 정신적인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핵심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에 있습니다. 이처럼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죄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히 5:8-9)



그림묵상

이 작품은 매우 깊은 어두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무렵 렘브란트는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당시에 겪고 있던 두려움이 이 그림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림 속 예수님은 극심한 피로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혼자 설 힘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로 자신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히 5:7)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괴로움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어둠속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전쟁과도 같은 기도 중이지만 함께 기도해야 할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버렸습니다. 오직 천사만이 예수님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 순간 어둠은 깨지고 밝은 광채가 비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기도를 끝내신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부축에 힘입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Q1.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에 담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Q2.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 본 경험은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4-62절]

말씀읽기

54.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5.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58.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노라 하더라 59.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본문이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 한 병사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병사의 귀를 고쳐 주시고 별 저항 없이 끌려가셨습니다. 순간 베드로의 발은 굳어지는 듯했고 겨우 겨우 무리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멀찍이서 예수님을 좇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앞뜰에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게 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 중 한 사람이 아닌지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쌓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딱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61절) 고통 속에 계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커다란 실패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의 실패는 '십자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단지 가장 치욕스럽고 끔찍한 형벌로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를 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림묵상

이 작품에서 베드로는 커다란 망토로 자신을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촛불로 베드로의 얼굴을 환히 비춥니다. 어둠에 빛이 비추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렘브란트는 베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한 듯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밖에 없는 압도적인 분위기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은 험한 표정의 군인이 베드로를 응시하고 있고, 베드로 앞의 긴 칼은 베드로에게 닥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림 속에서 어둡게 처리된 오른쪽 상단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주 흐릿하게 보입니다.(61절)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 실패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Q1.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과연 그 눈빛과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Q2. 당신은 삶에서 실패를 느꼈을 때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3-2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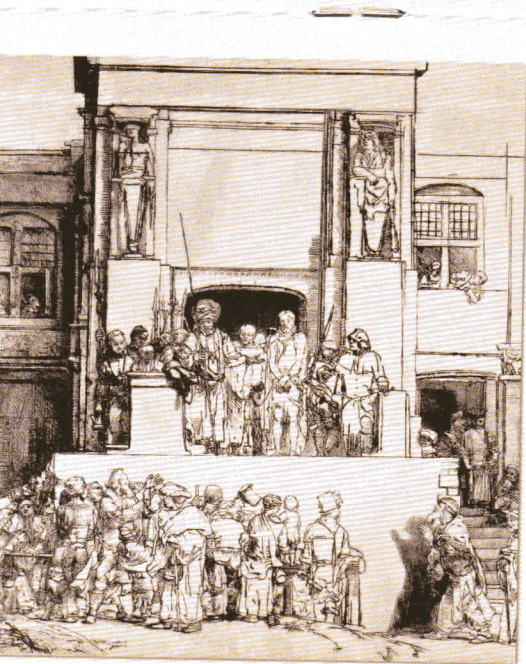
말씀읽기

13.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14.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 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 일 일이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7. (없음) 18.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19.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20.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2.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23.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본문이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선고를 내릴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경고의 뜻으로 때리고 놓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빌라도는 유월절 절기 때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를 활용하여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잡혀온 바라바는 반란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석방을 선택할 것이라 내심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고려할만한 범죄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우리의 요구도 세 번에 걸쳐 점점 격렬해 집니다. (18, 21, 23절) 결국 무리들이 빌라도를 이기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성난 무리들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아마도 이 무리에는 애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다른 사람들의 선동에 쉽게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여 예수님을 추앙하기도 하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후회도 쉽게 합니다. (48절)



Ecce Homo (1655년, 드라이포인트)

그림묵상

'Ecce Homo'는 라틴어로 '보라 이 사람이다'(요19:5)라는 뜻으로 빌라도가 가시 면류관을 쓴 그리스도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작품을 보면 빌라도는 성난 군중들 앞에 위엄을 드러내며 서 있습니다. 그 옆의 예수님의 손은 묶여있고 상반신은 벗겨진 채 사람들과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살인자 바라바가 중심에 보이고 빌라도의 아내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라는 아내의 충고(마27:19) 대신 성난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맙니다. 그림 속에서 물병을 든 사람은 빌라도가 손 씻을 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유대인들에게 돌립니다. (마27:24) 렘브란트는 군중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성난 사람들, 참소하는 종교지도자들, 구경꾼들. 렘브란트는 이들 사이에 침묵하며 초연하게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Q1. 빌라도, 바라바, 로마 병사들, 성난 무리들, 구경꾼들, 제사장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Q2.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6-31절]

말씀읽기

26.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27.또 백성과 밧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9.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본문이해

군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합니다. 군인들이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자 행군에 많은 지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나중에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와 함께 공동체의 모범이 됩니다.(막15:21, 롬16:13) 십자가 행렬에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의 여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처형된 자를 공개적으로 애도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애도하며 뒤따라온 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항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향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30절의 의미는 심판과 저주의 날의 고통이 너무 크니 차라리 산이 무너져 자신들을 덮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31절의 푸른 나무는 무죄한 이미지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반면 마른나무는 거짓되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두절은 심판과 저주의 무서운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진짜 슬픈 일은 자신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신 것은 죄악으로 인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의 죄였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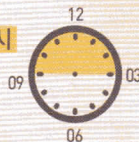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1655-60년, 드로잉)

그림묵상

초창기 화가들은 고난 받는 예수님을 일어서서 걷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고난 보다는 승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13세기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이 강조됩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한 화가는 램브란트였습니다. 그는 고난 시리즈를 따로 제작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에 지쳐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두 명의 로마군사 중 한 명이 행인의 손목을 낚아채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합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흐르는 땀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여인도 예수님께 다가서려 하자 로마 군인이 저지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을 뒤따르던 무리들에는 통곡소리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음소리도 매우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Q1. 역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단지 운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Q2.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의 날에 대해 슬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슬퍼해야 할 우리의 죄악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23장 35-43절]

말씀읽기

35.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37.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8.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9.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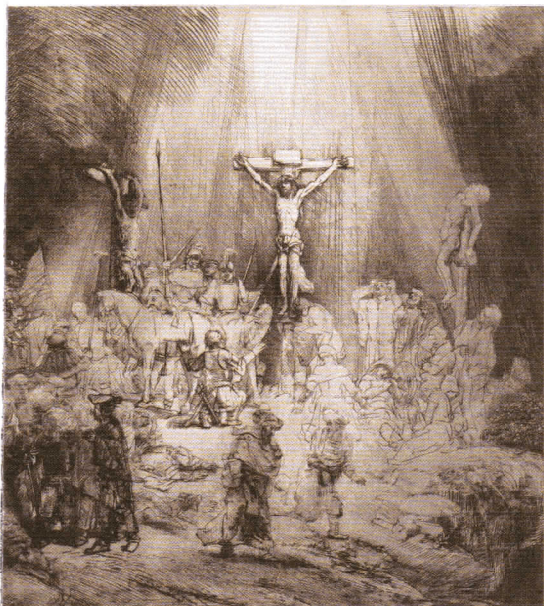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아무 말 없이 서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등장합니다. 관리들 즉 의회원들은 비웃으며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쓰인 패를 십자가에 매달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뒤따라 오면서 슬퍼하던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하던 무리들과 예수님을 비방하던 죄인은 한결같이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기적을 보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뒤따라 조롱하게 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경제적 부강이나 종교적 기적, 정치적 혁명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죄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며 못 박아 죽이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34절). 그런데 십자가 처형 현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죄 용서'를 간절히 비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 달린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한 사람은 단 한마디의 고백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림묵상

이 작품 속 분위기는 침통합니다. 빛과 어둠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승리와 평안을 상징하는 빛이 십자가를 향해 비추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죄인 중 오른쪽에 있는 죄인은 하늘을 향해 빛을 받고 있으며 왼쪽의 죄인의 얼굴은 빛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는 사람, 급히 돌아가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그리고 어둠속에 있는 제사장들 무리들이 보입니다. 어떤 미술학자는 이 그림의 어두운 곳에 있는 무리 속에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그림 속 무리들 중 누군가가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1.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향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Q2.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수많은 무리들 중 어떤 모습에 가깝습니까?



세 십자가 (1653, 드라이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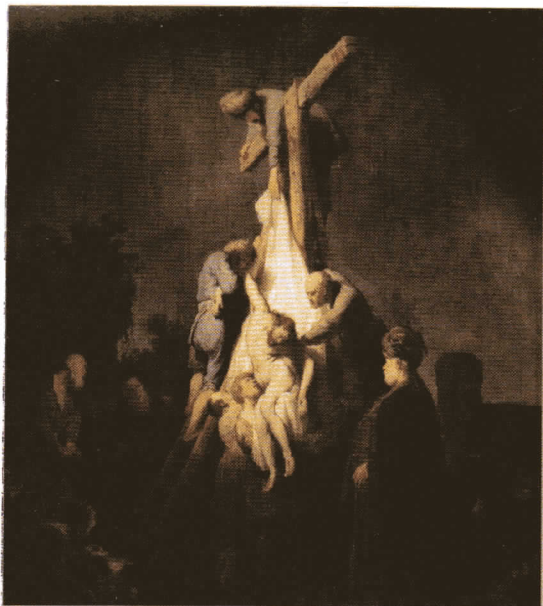
[요한복음 19장 38-42절]

말씀읽기

38.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40.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1.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본문이해

금요일 저녁 일몰과 함께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보통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시체는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방치되었습니다. 까마귀에 뜯기며 그대로 썩게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그렇게 치욕적인 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어 조금 늦게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 의원(요 3:1, 7:50)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원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후에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장 당할 때는 비싼 향품을 백 리트라(약33kg)나 들고 와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숨겨진 제자 둘은 것처럼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감싸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림묵상

이 작품 속 예수님의 시신은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다한 그의 몸은 이제 금방이라도 찢겨져 나갈 만큼 약해졌습니다. 이 그림에서 빛을 쓰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전신으로 그의 하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하체를 가리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최고의 치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안고 있는 것은 니고데모입니다. 그의 눈길은 아래로 향하여있어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함께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은 램브란트 자신입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단순한 관찰자로 머물 수 없어서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기를 잃어버린 싸늘한 그리스도를 두 팔로 안는 슬픔에 잠긴 사람으로 자신을 묘사하며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애도와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Q1.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떠한 행동을 했나요?
이들의 행동은 그들이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Q2.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08 부활주일 :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28-35절]

말씀읽기

28.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본문이해

예수님의 죽음에 낙담한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낯선 길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선지자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강권하여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더 이상의 여행은 어려웠고 대화 속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머문 곳이 어디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매우 일상적인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함께 했던 만찬처럼 떡을 떼어 축사하여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 그들의 마음속에는 뜨겁게 떠오르는 감격과 기쁨이 남았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즉시 일어나 어두워진 밤길을 걸어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을 돌이켜 친교를 회복하고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림목상

이 작품의 무대는 허름한 숙소입니다. 식탁 외에는 아무런 장식이나 가구도 없습니다. 렘브란트는 불필요한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림에는 네 명의 인물이 등장 합니다. 화면 중앙에 보이는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제자들이, 하단에는 시종드는 아이가 있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우측의 제자는 깜짝 놀라 몸을 뒤로 젖히며 있고, 좌측의 제자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다른 화가들처럼 예수님의 영웅적인 위인의 모습이나 미화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의 기록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사 53:2)'모습입니다. 렘브란트가 묘사한 예수님이 너무나 평범하였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위엄을 광채로 표현했습니다.

Q1.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Q2.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엠마오에서의 식사 (1654, 판화)